바른정당 분당 위기에 정국 요동

통합파, 한국당 박근혜 출당 조치시 명분삼아탈당 가능성↑

15명 이상 자유한국당과 통합 동참시 원내1당 지위 회복해

바른정당이 분당(分黨)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이르면 이번 주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 의원 15명 이상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에 동참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 전 원내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정책연대, 연정이란 러브콜을 국민의당에 보내고 있다.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바른정당은 자강파와 통합파로 이미 분열된 상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지난 11일 부터는 공식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바른정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내놨지만 다른 정당은 매일 공식회의를 열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파와 자강파간 갈등 등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이유로 지목된다.

통합파는 한국당 내 보수통합 추진 세력과 발을 맞추고 있다. 이번 주 중반께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면 이를 명분삼아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강파는 통합파가 탈당하더라도 11월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전대)를 차질 없이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의원 등 전대 출마를 선언한 인사 대부분이 자강파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및 탈당 권유 조치를 밟으면서 바른정당과 보수 대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홍 대표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심사 기일을 탈당 기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시기와 관련해 "바른정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11월 13일이니 늦어도 그달 5일까지는 마무리돼야할 것으로 본다"며 "확실한 건 11월 안으로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보수대통합의 문을 열어뒀지만 솔직히 유승민 의원이나 몇 분은 수긍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결론은 부분통합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며 "당대당 통합보다는 부분통합이 아쉽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대통합이 현실화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선택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정책연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탓에 추가경정예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현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 나머지 인사 문제 등에서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고민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연대 등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인준 과정)에서 드러났듯 매번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우니 국민의당과 법안, 예산, 개헌 등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의 틀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보자는 얘기였다"고 회동 배경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우 원내대표가 '정책연대를 하자', '협치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연정을 제안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두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공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정의당과의 '개혁 입법연대' 구성이나 국민의당과 '2+2(당대표·원내대표)' 또는 '3+3(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2+2, 3+3 등 협치 과제가 많다"며 "예산, 선거구제, 개헌 등에 대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 연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연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연정은 쉽지 않겠지만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서 함께 하는 각외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발 연정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제3지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은 되는 거 없이 혼란스럽지만 일관성이 있는 게 있다면 협치나 연정으로 말장난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장난질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내각도 거의 다 꾸려지고 정책 방향도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영화 전공 학생들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산 해운대구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에서 영화 미씽:사라진여자를 관람한 후 영화 전공 학생들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 본 행사 기간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준표 "반대 높아 통합 안 돼?…한심한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보수 세력 통합과 관련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통합(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통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참으로 한심한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우파 통합 여론조사를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반대 지지자가 보수통합을 지지할 일 있겠나"라며 "오히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응답률이 10%도 안되는 한국의 여론조사를 믿고 정치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지도자는 여론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박지원 "바른정당이 특별교섭단체 제안?…당 내외 신중한 태도 강조"

"정당, 정체성 중요…안그래도 어려운 당"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일부 언론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 특별교섭단체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당 내외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붕괴 직전의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합동 구성안을 (바른정당) 자강파 일부에서 (국민의당에) 제안했고 더욱 우리 당 일부에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다"라며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당"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정 논의설에 대해 민주당으로부터 연정과 정책연합 제안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논의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정부여당에 "김이수 두고 여론 왜곡 선동…국정 운영 독 될 것"

"文대통령, 지금이라도 6년 임기 헌재소장 지명 문제 해결"

국민의당은 15일 최근 정부여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반발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야당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런 행태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며 국정 운영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게재,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망언, 민주당 당직자의 SNS 여론 왜곡 선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모 당직자는 SNS 계정에 '힘내세요 김이수'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자고 선동하고 실제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 얼마나 지속 되는지 보겠다며 여론 왜곡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회와의 협치를 운운하는데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의 옳은 소리에 귀를 막으며 어떤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가 부결시킨 김 권한대행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